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전북도, 23일까지 복지시설·의료기관·특수학교 등 대상 접수 복지시설 나눔숲·무장애 나눔길·치유의 숲 조성 등 3개 분야 추진

전북도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의료기관 입원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환경 개선과 휴양·치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 인프라를 확대한다. 도는 도내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2022년 녹색자금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은 복지시설 나눔숲, 무장애 나눔길, 치유의 숲 조성 등 총 3개 분야이며, 녹색자금 156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복지시설 나눔숲'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 특수학교의 실외에 숲을 조성해 정서안정과 면역력 증진 등을 꾀하는 환경 개선사업이다.

'무장애 나눔길'은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을 체험할 수 있도록, 목재데크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치유의 숲 조성'은 지역사회 중심의 산림치유 체험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은 개소당 최대 2억 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은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한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개소당 6100만 원을 지원한다. 응모 방법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제안서를 작성해 7월 23일까지 시·군 산림부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방법과 지원조건 등은 한국 산림복지진흥원 누리집(<https://fowi.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녹색자금 253억67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115개소에 녹색 인프라를 확충했다. 올해도 복지시설 나눔숲 5개소(전주, 군산, 남원, 김제, 부안), 무장애 나눔길 4개소(익산, 완주, 고창, 부안)를 조성하고 있다. 허전 도 환경복지국장은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복권 수익기금을 활용해 사회배려 계층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숲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유익한 사업으로, 산림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가 여름철 건설노동자 건강관리와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건설행정처분 제도 방안 등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북도, 건설현장 관계자와 간담회 갖고 의견 청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행정처분 제도 방안 등의

전북도가 여름철 건설노동자 건강관리와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건설행정처분 제도 방안 등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2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전북도, 대한건설협회, 대한전선건설협회, 도로·하천 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일선 현장 실무자들과 협의했다. 또, 도는 건설업 행정처분 중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인한 과태료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건설업체의 자발적 규정 준수 노력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도는 처벌위주 행정에서 사전 계도로 업체 부담도 덜어줄 방침이다.

김영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건설현장 내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지침을 실천하는 등 각별한 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며 "전북도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도 점검·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간담회를 통해 사고예방 시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규시책을 마련해 건설안전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



전북연구원은 도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유튜브 채널 '오늘의 전북, 내일의 행복'을 개설했다.

'오늘의 전북, 내일의 행복' 유튜브 채널 개설

전북연구원, 도민과 소통 강화 위해... 권혁남 원장 첫 번째 유튜브로 활동 시작

박사들이 전북의 오늘을 진단하고, 미래 모습을 살펴보는 유튜브 채널이 개설됐다.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도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유튜브 채널 '오늘의 전북, 내일의 행복'을 개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종합연구기관인 연구원은 일반인이 연구성과를 이해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채널을 개설했다. 연구원은 주요 연구성과를 짧은 동영상으로 제작해 '오늘의 전북, 내일의 행복' 채널에 게시함으로써 연구성과를 확산시킬 복안이다. 연구원은 매일 하나의 주제를 여러 파트로 구성된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에 게시할 예정이다.

동영상 콘텐츠는 유튜브 검색창에서 전북연구원을 검색하거나, 연구원 홈페이지(jhik.kr) '연구원소식'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연구원 박사들 가운데 권혁남 원장이 첫 번째 유튜브로 활동을 시작했다. 연구원은 권혁남 원장이 행복을 주제로 출연한 '2020 전북도민 행복 보고서'를 게시했다. 콘텐츠에서 권 원장은 행복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조사에서 나타난 전북도민의 행복점수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콘텐츠에서 권 원장은 "GDP가 2만 달러를 넘어서면 국가 경제력이 개인의 행복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개인 행복을

위해 경제성장 지상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앞으로 연구원은 '전북 경제성장 경로와 미래방향'과 '로컬가치와 전북의 인구정책', '먹거리와 푸드플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새만금은 지금', '전북의 사회 복지 인프라' 콘텐츠를 올해 연말까지 매달 한 편씩 게시할 예정이다. 권혁남 전북연구원장은 "전북도의 출연기관인 연구원의 성과물은 공공의 자산으로 도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도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사회적 농업 정책 설명회·워크숍' 개최

사회적 농업 정책 방향 설명·토론·제안 등 공유

전북도는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및 (영)여민동락 주관으로 지난 19일 완주군 안덕마을에서 사회적 농업 경영체 대표와 시·군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 사회적 농업 정책 설명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회적 농업'은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범죄피해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농업 활동을 통해 돌봄·교육·고용 등을 도모하고 실천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2018년부터 발달장애인,

독거노인, 범죄피해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완주군, 임실군, 무주군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2021년에는 7개 시·군에 10개소가 선정됐고, 전국(60개소) 최다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 및 토론회는 농촌 지역 사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농업에 대해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고, 그간 오랜 경험을 쌓아온 사회적 농장의 새로운 제안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지는 사무관은 "전북도 사회적 농업 관계자 및 관심 있는 분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사회적 농업 확대 및 공동체 단위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의 패러다임이 생산중심에서 가치 실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사회적 농업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농촌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